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기독교적 변용 – 후기철학의 적용 –

Transformation of Wittgenstein's Philosophy into Christianity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tter Philosophy –

신상형 (Sang Hyong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 momentum to witness the present state of Korean Christianity by presenting the theoretical philosophy of the modern philosopher Wittgenstein.

Christianity, especially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which has passed through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has recently suffered a sharp closure and rigidity. A public large-scale church is privy to the secular dehumanization of the pastor, the contribution is made available by certain people, the institution of the church is altered privately, and theology is in the form of a subversive corruption. Because of this, the church receives many accusations from inside and outside, and Christian theology is emerging. I do not think that this de-Christian secularization is simply a result of the pursuit of the interests of a few members. I think it comes from the fundamental misreading of Christian thought.

The fundamental misreading of Christian thought that encourages the secularization of Korean Christian congregation comes from the misreading of the Bible. This misreading is manifested in the unification of all things, in the law, and in the fateful relief. Of course Christianity is not the only cause of this. It has been in the interpretation of philosophy, science or history. These existing theories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the appearance of misreading. In my view,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 unity of the world can not be applied to the thought of the Bible as opposed to the position of manifesting diversity and pluralism in philosophy.

In addition, the absolute time or absolute space that science speaks is a theory of ancient science, but it is a theory that explains the universe in that it can not explain the situation that can be explained by the relative time and space of modern times. It must

*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Andong National University),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sshin@anu.ac.kr
2019년 02월 08일 접수, 03월 13일 최종수정, 03월 15일 게재확정

therefore be seen that the Bible distorted the truth in that it interferes with the various theories – unlike the misunderstandings of the intended–medieval theology and theory. Moreover, the historicist position rejects other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that it legitimizes and fixes the existing case of history, and thus seems to distort the overall and overall intention of the Bible.

As a way to overcome this, we need to take a view of the latter Wittgenstein and look at things and situations with different eyes. According to Wittgenstein, every situation in the world is a game or play. Play is a collective term referring to all of human life, and moreover, of all of outer space. Play, however, has its own characteristics, objectives, and rules. Rules can be called grammar as the working principle of these plays themselves. Rule is a mechanism that reveals the peculiarities of many plays, and it is impossible to standardize on the basis that it can not be based on any one and is not reducible.

In accepting this view and looking at the Bible, the origin of all things from creation is pluralistic. Also, the world that is revealed in the story of creation is far from a single one. At the same time it is a grammatical and orderly play in that the appearance of the universe is procedural and organized. If Christian play has its own play mode – operating rules – and keeps this well, it is a great play to play with. Of course, when Christianity adheres to these rules, it will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 which will surely accompany positive results. In light of these standards, it will be a different play from the current deviated secularization.

Key Words : Wittgenstein, christianity, play, religion, faith, world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안동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2016 Research Funds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1.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는 기독교 – 개신교 –는 개혁적 모습을 많이 상실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최근 급격히 폐쇄되고 경직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공적인 대형교회가 목회자의 사적 세습화를 이루고, 헌금이 특정인에 의해 유용되며, 교회의 제도가 사사로이 변조되고, 신학이 곡학아세하는 기복적 타락의 형태를 띠는 등 세속적 일탈이 거리낌 없이 자행된다. 이 때문에 교회는 안팎에서 많은 비난을 받으며, 기독교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의 탈 기독교적 세속화는 단순히 구성원 몇 사람의 오해나 일탈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의 근본적 오독에서

비롯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존의 종교에서도 흔히 드러나는 일이나만큼 기독교만을 폄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독교의 부정적 세속화를 부추기는 교회의 일탈은 5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성경의 오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오독의 결과는 다양하고 다기한 모습을 띠며, 교회마다 자체의 독특한 지도자-추종자 관계를 통해 특별한 문제적 상황을 연출한다.¹⁾ 이런 문제적 상황은 타락적 상황이다. 타락이란 종교의 신앙적 상황을 세속적 상황으로 변질시켜 세속적 가치관으로 운용하면서 이것을 종교적 내지 신적 상황으로 참칭하면서 계속 세속적 유익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를 교회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성인경 엮음, 1996: 90-92).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을 자연과 은총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 둘을 분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신학대전』의 512개 문답 중 일부) 이 주장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통해 자연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그것을 향유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쉐퍼에 따르면, 이런 견해는 그의 불완전한 타락관²⁾이 자연과 은총 사이의 긴장을 조성하고, 자연이 점차 은총을 잠식하고 결국은 자연의 의미마저도 상실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한다. 아퀴나스의 이런 신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은 자율적이라는 생각을 촉발시켜, 은총의 자리를 결국 이성이 대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기독교에서는 기존에 있어 온 타종교의 권위주의나 규율주의, 관념적 역사주의 혹은 기복적 신비주의 등을 본받³⁾ 타락의 궤도를 걷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웃 종교와의 접촉이나 상호영향력은 반드시 타락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이웃이 가진 부정적 영향들을 입는 것은 적어도 기존의 그 종교가 겪어 온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논의는 종교의 비교가 아니므로, 그 영향의 논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종교의 타락에서 빚어지는 오류는 근본적으로 환원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⁴⁾

1) 여기에서는 이단 교단의 출현 시에 목도하는 직접적 교리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 규정을 따르면서 은연중 시작되어 탈종교적 윤리에까지 이르는 ‘간교한’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2)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으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아퀴나스의 견해.

3) 유교와 불교 및 무속신앙에서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발견되는데, 한국기독교의 타락은 양적팽창을 해오면서 은연중 이런 요소들이 교회문화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 그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일종의 왜곡이라 할 수 있는 환원은 철학과 과학 혹은 역사의 해석에서 늘 있어왔다. 이런 환원들이 축적되면 오독이 생겨난다. 그리고 타락적 욕망은 사태에 대한 바른 설명을 멀리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환원은 또한 다양성과 다원성을 대체로 용인하지 않는다. 일원론은 경직적인 권위주의를 함축하여 모든 다양한 논의들을 사장시키며, 동시에 비의적인 신비주의를 동반한다. 한편, 우리가 접하는 세계는 다양성을 가진 것이어서, 환원된 해석의 안경을 통해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환원주의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따라서 종교적 타락의 원리적 파악을 이해하는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원론 철학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치되는 다원론적 견해인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사상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책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환원주의의 대표적 사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함으로써 현대 종교타락의 이해를 위한 방법론적 계기를 마련해 보았다. 여기서는 그 입장들을 세 가지 스캔들로 다루었다.⁵⁾

1. 일원론 철학 스캔들

대체로 종교적 일탈은 그 지도자들이 신자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또 이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특정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한 점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려면 다른 점들을 사상하고, 그 정당성을 단절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왜곡된 시선을 만들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지, 그 시선이 향해야 하는 이유나 목적의 타당성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다른 모든 다양성들을 사상시키고 한 곳으로 환원시켜 체계화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고 또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일원론 철학이 된다.⁶⁾

기본적으로 일원론 철학은 세계의 기원이나 구성이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온갖 전제와 논리를 동원하였다. 여기에 속한 철학자들은 세계의 원질이나 근원이 되는 물질이나 원리를 하나라고 여기며 그것을 찾아

4) 아퀴나스처럼 자연과 은총이 같다고 했다가 자연으로 강조점이 옮겨가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행함이 없는 가치는 가치가 아니라고 몰아가는 경우들은 전부가 환원적이다.

5) 이런 시나리오는 2017년 한국기독교철학회 부설 기독교문아카데미에서 2주에 걸쳐 발표되었다.

6) 당연히 설교나 강연에서 자주 신도들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물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오로지 믿으면서 따로 오기만 해라.’이다.

내는 일을 철학의 본분이라고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에 따른 나름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런 일원론의 유형은 수없이 많으나, 단지 그 구조를 특징적으로 살피기 위해 최초로 등장한 고대철학의 두 대표적 입장을 다루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시킨다. 이 입장들은 시기상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장소의 연접성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어서,⁷⁾ 그것들의 언급은 단순한 논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발생한 순서를 따라 두 입장을 차례로 다루어 보자.

(1) 밀레토스 학파

그 이전의 문학적 신화적 진술을 걷어내고 이성적인 기준을 따라 세계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철학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밀레토스 학파였다(힐쉬베르거, 1992, 52-3쪽).⁸⁾ 이들은 철저한 경험의 의미를 중요시하여, 자연의 경험가능성과 명료성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논리적 열개를 동원하여 그것을 설명하였다. 이 철학은 탈레스를 통해 그 출발을 시작하였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추측했다. 여기에서 만물의 근원(아르케)이란 모든 만물의 기원이자 귀결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 탈레스의 탐구가 물질적 근원으로서 경험 가능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구체적이지 경험 가능한 동시에 가변적인 성질을 소유한 것이다. 때문에 물로부터 모든 존재자의 기원을 상정하기란 쉽다.

탈레스의 탁견은 많은 고대지성인들에게는 새로운 지혜이자 철학적 사유의 세계로 인도하는 지성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탈레스의 이론의 한계를 본 것은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였다. 그가 제안한 원질의 수정본은 ‘무한정자’이었다. 무한정자란 삼라만상

7)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은 총 1,500년간, 그리고 전체 1,600년간에 걸쳐 기록되었다고 한다. 구약은 BC 1,500~BC100까지, 신약은 AD 30~100년에 기록되었다. 기록 장소는 근동으로 사용언어는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였다. 고대철학의 기원은 BC 630년경이고 장소는 근동 즉 현재의 터키와 그리스였다. 따라서 성경과 철학의 발생은 시공간적으로 서로 중첩되어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추정된다.

8) 예를 들어 ‘미토스에서 로고스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신이 아니라 증명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철학은 이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철학사의 정설이다. 그리고 이하에서 다루어지는 두 사상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개론적이어서 서지사항을 생략한다. 왜냐하면 논의 초점은 논변이지 사견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 모든 물질의 다양성과 다기함을 포용하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탈레스의 원질인 물은 용기를 따라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부분적 융통성만 가지고 있는 반면, 무한정자는 물과 무관한 사물들의 원질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정자 이론은 한계는 있지만 그것이 지닌 설명의 논리적 완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존재자라도 변환가능하려면 규정의 틀을 벗어야 한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추론은 무한을 전제해 놓고도 정의를 통해 세계를 설명하는 수학의 논리적 관념화만큼이나 탁월하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와 비슷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뒤따르는 그의 제자 아낙시메네스에 의해 격퇴된다. 왜냐하면 무한정자는 모든 사물들의 기원이 가능하다는 추상성에서는 탁월했으나, 뒤집어 보면, 구체성에 있어서는 가장 열악하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결국 요구되는 사항은 추상적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물의 기원을 동시적으로 설명해 줄 가능성이었다.

그리하여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원질로서 공기를 제시한다. 공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론적으로는 추상적인 것이나, 경험적으로는 매우 구체적이다.⁹⁾ 따라서 그의 원질은 자기의 스승인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를 둘 다 취함으로써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탁월성을 구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오직 공기만으로 다양한 삼라만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의 논지에 의하면 공기는 생물과 신적인 존재로 되기도 한다고 한다(힐쉬베르거, 59).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밀레토스 학자들은 만물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기반은 경험이었다. 그러나 칸트가 지적했듯이, 경험은 제대로 된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맹목적이 된다. 감각을 통해 파악한 원질은 물이든, 무한정자든, 공기이든 간에 직관적이고 즉물적인 대상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서 만물의 기원이 물질적 변환의 이행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이 추론 때문에 합리성에 있어서 신화적 설명을 논리적으로 능가하는 우수성을 담보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변화자체의 선언적 설명에서는 우위를 점하나 실제로는 실질적 혹은 경험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사물의 생성소멸을 나타내는 변화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만물의 원질에 대한 보다 깊은 존재론적 추론은 엘레아학파에 의해 이루어진다.

9) 예컨대 나뭇잎이 필러일 때 공기의 존재를 우리는 쉽게 직감한다.

현대 종교적 이탈의 주범 중 하나는 일원화된 ‘은사 중심의 체험적 신앙’이다. 한국의 세계적 초대형 교회가 표방한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목사와 신도들은 그들이 목도한 신비적 체험을 통해 세속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세를 확장했으나, 결국은 경험적 맹목성에 구속되어 정상적 교회 운영이나 합리적 소통의 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 여러 난맥상을 드러내었다. 합리적 사고력의 결핍에서 오는 그들의 삶은 현실적인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결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엘레아학파

구체적 물질을 탐구하는 밀레토스 학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엘레아학파는 비록 그 관심이 사변적인 논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원질을 존재라고 보았다. 이 존재는 영원불변하는 것으로 그것은 모든 존재의 모체이자 결과였다. 그러나 후속적으로 탐구된 여러 원질들은 결국은 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기원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엘레아 철학자들은 이런 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물의 원질을 추론에 의해서만 파악하려고 한다. 엘레아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세 사람이다.

크세노파네스는 우국충정을 가진 철학자로서 헬라의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신관으로 돌렸다. 당시 헬라의 신관은 의인론적 다신관으로서 인간과 같이, 각종 희로애락을 만들어 내는 저차원적 존재였다. 말하자면 그 신들에게서 인간의 품격을 고양시키는 고상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뿐더러 백인, 흑인, 황인의 모습을 한 신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관을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초월적이지 않았다. 이런 열등한 몰모델로 인해 인간의 삶은 형편없이 타락되는 형국에 처해 있다고 크세노파네스는 지적하면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관을 제시하였다. 이런 초월적이자 유일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성애 충실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

크세노파네스의 영향을 받은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의 존재규칙을 설파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따라서 유일하며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 있는 것은 존재를 뜻하고, 없는 것은 공간을 뜻한다. 이 말

10) 힐쉬베르거에 따르면 이것은 가장 오래된 비판적 종교철학이다. 크세노파네스는 다신교를 극복하여 유일신, 초월신, 도덕적 완전자로서의 신 인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은 “존재는 있고, 공간은 없다.”라는 말로 번역된다. 존재는 동시에 어떤 변화 즉 생성 소멸도 겪지 않는다. 존재가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는 것이 소멸인데, 결국 이것은 존재가 공간으로 된다는 것이므로 애초에 불가능하다. 생성이란 어떤 것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공간이 존재로 바뀐다는 뜻이므로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존재란 절대로 공간을 갖지 않는 것이며, 공간이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간을 품은 존재란 없다. 존재 사이에 공간을 품는다면, 한 존재가 동시에 여럿이라는 주장이 되므로, 존재 사이에 긴 공간을 가진 존재란 있을 수 없으므로 존재가 여럿이 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존재는 모든 존재가 붙어있는 - 공간을 전혀 가지지 않는 - 형태의 존재가 된다. 즉, 존재는 모두 다 열거해도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존재는 중심점에서 바깥 모든 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동일한 -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과다와 결핍의 개념이 생겨 은연중 공간을 수용하게 되므로 - 완전히 동그란 모양의 공 즉 둥근 구체가 유일한 존재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과연 이런 모습이 참된 우주의 삼라만상인가? 다양한(잡다한) 우주는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을 통해 착각한 허상이다. 진상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 볼 때 보게 되는 유일한 구체일 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제논은 잡다를 부정하는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수용하여 운동부분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역설을 주장한다. ‘나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 ‘아킬레스는 앞서 간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화살은 과녁을 향해 날아갈 때 그것은 움직인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 수 만분의 일초에서 - 그 화살은 정지해 있다. 이 때 화살의 속도는 0이 된다. 이 0을 수 만개 모으면 화살의 궤적 거리가 된다. 따라서 만일 속도 0이 되는 경우를 전부 보태어도 그것은 0이므로, 화살은 정지해 있다는 것이다. 또, 당시 가장 빠른 경주자였던 아킬레스와 거북은 25m의 간격을 두고 100m를 목표로 달리기를 하였다. 아킬레스가 거북의 위치인 25m(a_1 지점)에 도달하면 거북은 이미 얼마만큼(a_2 지점) 앞서 달리고 있다. 다음으로, 아킬레스가 a_2 지점에 가면 거북은 또 a_3 지점으로 달아나 있다.... 이런 식으로 얼마의 거리를 거북이 앞서 있는 상태로 무한히 달리면 결국은 100m 지점을 아킬레스에 앞서 거북이 도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적어도 앞선 거리가 0보다 크고 이것이 무한히 더해질 때 그 거리가 엄청나므로 결국 아킬레스가 거북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제논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엘레아 철학자들은 만물의 원질로서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는 철저한 추론을 사용하

면서, 우리의 인식으로서 이성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험적 인식의 불완전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경험의 직관성을 억견doxa으로 배척하면서 이성적 인식episteme을 강조함으로써 철학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선부른 일원적 인식을 절대적으로 확립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온전한 인식은 현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듯이 지정의의 균형 있는 인정을 통해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기독교에서도 탈 경험적 이성주의나 교리만을 중시하여 획일화를 강요하기도 한다. 체험주의 신앙행태를 비판하면서 지성주의를 끌어들이는 경우이다. 신학이 중시되고, 세속적 지식이 우위를 점하며, 모든 신앙적 맥락의 고유성을 탈피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안타깝게도 이런 맥락에서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기를 그만두고, 지적 유희로 바뀌면서 세속 지식의 영향 아래로 그 해석이 종속된다.

어쨌든 지금까지 다룬 일원론의 폐해는 모든 종교적 담론을 특정한 영향 하에 두려는 의도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구속하려는 원인이나 결과에 오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구조나 현상은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다. 이런 세계설명의 단순화는 단지 철학에만 출현한 것은 아니고 과학에서도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상이 과학주의이었다.

2. 과학주의 스캔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되어 1687년에 출판된 *Principia*를 통해 발표되었다.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일컬어지는 *Principia*는 운동 법칙 이외에 만유인력의 법칙과 케플러법칙의 유도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때, 흔히 물체를 질점인 입자로 이상화하는데, 이것은 물체의 크기와 형태를 무시하여 물체의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물체의 크기가 운동 범위에 비해 매우 작을 때나, 혹은 같은 맥락에서 별 주위의 궤도운동을 기술하고자 할 때 행성조차도 입자로 이상화할 수 있다.

원형 그대로의 뉴턴의 운동 법칙은 강체나 변형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1750년 오일러는 강체들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일반화한 오일러의 운동 법칙을 고안하였고, 그 후에 연속체로써 변형체에도 이 법칙을 적용하였다. 물체를 불연속적인 입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각 입자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오일러의 운동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운동 법칙이 기반하고 있는 계기는 바로 절대적 시간·공간의 개념이다. 사실 칸트에게서도 드러나지만, 근대까지의 시간·공간은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공간의 개념은 뉴턴의 역학에서 비롯된다.

(1) 절대시간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다. 시점과 시점을 연결하면서 벌어져 있는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세월 혹은 광음이라고 한다. 시간 이해를 위한 시도는 고대부터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시간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갈래의 폭넓은 시각이 많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시간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시간이 사건의 측정을 위한 인위적인 단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학적 의미를 갖는 어떠한 양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

산업혁명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전에는 서구에서도 기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측정 가능한 ‘시간’이라는 구체적 개념이 없었다. 공전과 자전에 따라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시간을 대략적으로 가늠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시간의 측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철도회사가 생기고, 각종 물품회사가 생기면서 객관적인 시간의 측정과 그것의 정확성은 ‘돈’과 직결되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융의 동시성 이론,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등이 논의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던 시간은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의 상대성과 주관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시간’은 작가, 화가와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로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은 현대에 들어서 시간여행, 거꾸로 가는 시간, 시간이 멈추는 등 시간에 대한 흥미로운 소재와 과제로 다양한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2) 절대공간

공간은 3차원을 갖고 시간은 1차원이다. 공간은 동시에 존재하는 사물의 분포 상태

를 나타내고, 시간은 각종 현상이 서로 연속하여 드나드는 그들의 계기를 가리킨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물질 경과의 일 방향적 변화, 즉 비가역적인 경과를 가리킨다. 철학에서는 시간·공간이 실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식 내에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뉴턴의 학설에서 모든 상대적 공간의 근원이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 영원불변의 절대적 공간은 상대성이론의 출현 이후 현대에서 부정되었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에서는 이런 공간을 가상화하여 그 자체가 영구히 부동적인 실재라고 지은 이름이 절대공간이다. 물리 현상은 일반적으로 좌표계를 잡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 임의성을 제거하고 물리 법칙을 기술하기 위해,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항상 부동한 공간 즉 절대 공간의 존재가 뉴턴에 의해 제창된 것이다.

(3) 운동의 법칙

이런 절대 시공간의 확립을 통해 뉴턴은 물질의 운동법칙을 주창하게 된다. 고전역학의 토대를 이루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개의 법칙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¹¹⁾

제1법칙: 관성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여기서 현재의 운동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등속도 직선운동을 의미한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 한다.

제2법칙: 가속도 법칙

물체 운동의 시간적 변화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일어나며,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운동의 변화를 힘과 가속도로 나타내면, $F=ma$ 가 된다. 여기서 F 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 합이고, m 은 물체의 질량이며, a 는 물체의 가속도이다. 즉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는 그 힘에 비례한 가속도를 받는다. 이때 비례상수를

11) 뉴턴은 이 운동법칙을 3개로 정리하여 1687년 출판된 *Principia*에서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물체의 질량 및 힘의 개념이 명백해졌고, 고전역학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질량이라 하며, 이 식을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 한다.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두 물체가 서로 힘을 미치고 있을 때, 한쪽 물체가 받는 힘과 다른 쪽 물체가 받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임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어떤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물체 B는 물체 A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이 두 힘을 각각 작용력, 반작용력이라고 한다.

뉴턴의 법칙은 200여 년 동안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특수상대론과 양자역학에 의해 대체되기는 했지만, 일상적인 크기 규모와 속도에서 여전히 훌륭한 이론의 근거가 된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미적분법과 함께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인류의 과학사상 처음으로 통합적이고 양적인 사고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고전물리학 이론이다.

그러나, 고전물리학 이론이 잘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아주 작은 크기 규모에서, 혹은 매우 빠른 속도가 관여할 때, 혹은 중력장이 매우 강한 경우가 그런 예들이다. 즉, 고전물리학 이론은 반도체의 전도 현상, 초전도성, 물질의 광학적 성질, GPS의 시간 지연, 블랙홀 등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 상대론, 양자장론 등의 현대물리학 이론들이 필요하다. 이렇듯이 고전물리학은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 상정되는 경우에 그 모든 법칙들이 성립하며, 반대로 이 두 계기가 무너지면 전체가 일거에 무너지는 허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허약성을 극복한 현대물리학의 상대적이고도 유연한 사고를 겸비하게 되자, 참된 물리적 세계는 더 온전하게 관찰되고 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서구의 여러 신학자들이 다뤄 온 세계 이해의 방식을 금과옥조로 생각하여 반성 없이 한국적 상황에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파쟁이 일어나고, 독자적이고 새로운 성경의 해석이나 신학 혹은 기독교의 교리를 발전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절대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마저도 흔들리는 요즈음, 우리의 신앙적 해석이나 태도는 또 다른 접근법이 요청되며, 사실, 이런 태도의 실천이 오히려 우리의 이단논쟁이나 파쟁문제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¹²⁾ 이런 법칙주의는 비단 물리학이나 철학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시간 속에 벌어지는 각종의 시간적

12) 아직도 설교시간에 서양의 예화를 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시하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범적인 신앙사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태를 통찰하는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역사주의를 고찰해 보자.

3. 역사주의 스캔들

역사주의 historicism은 모든 현상이란 역사성을 지니며 따라서 역사적 제약을 벗어나는 현상은 존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철학적 입장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생성과 발전의 필연적 법칙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헤겔은 역사 철학을 철학의 중대한 주제로 인식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절대 정신(이성)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는, 일종의 진보적 역사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랑케는 과학적인 사료 비판에 근거하는 역사학이라는 견지로부터, 그러한 역사 법칙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했지만, 역사는 객관적 정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19세기는 ‘과학의 세기’라고 여겨져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과학적인 사상이 침식하기 시작하던 시대였다.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나 문화학에는 회의적 시각을 지녔다. 영국에서는 다윈의 영향 아래, 사회진화론이 유행하고 있었지만, 마르크스는 인식론·관념론적인 역사관을 비판해, 유물론적 역사주의가 유물사관을 과학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대에 빌헬름 딜타이는 자연과학과 역사학, 법학, 경제학 등의 정신과학을 대치시키며, 역사적 인식을 모형으로 하는 정신과학의 특징은 체험·표현·이해의 연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관은 ‘생’의 자기 해석이며, 역사는 이 해석의 모든 객관화의 총체가 되어 역사주의에 철학적인 기초가 되었다. 그곳에서 인간 생활의 모든 현상은 객관적인 정신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고, 그 생성과 발전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변동을 삶의 기초에 두는 철학은 객관적 정신이라도 변동을 인정하여 역사적 상대주의를 불러왔다.

이런 역사주의의 흐름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역사주의의 극복을 처음으로 말한 인물이다. 그에게 역사학은 순수 과학인 수학과는 그 본질이 달라, 과학으로서의 객관성을 위증할 경우에, 모든 가치는 그 무한의 역사 안에 내던져져 영원한 절망과 회의를 가져오므로, 역사학은 생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자연주의에 맞서는 과학과 생이 각각 자율적 영역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당시 주류인 역사학을 비판하는 형태가 되었다.

에른스트 트릴치는 ‘역사주의와 그 여러 문제’ (1922년), ‘역사주의와 그 극복’ (1924년)이라는 저서에서, 역사주의는 자연주의와 대등하게 맞서는 근대의 위대한 학문적 두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역사적 상대주의를 기독교와 서양 문화의 일체성을 근거로 한 문화 종합에 의해서 극복하려고 했다.¹³⁾

폴 틸리히는 ‘카이로스과 로고스’ (1926년)에서, 역사적 과정에 대해 형성되는 인식 행위가 항상 미래에 열리고 있어 동시에 인식이 그 역사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고 평가해, 시대에 규정된 진리의 인식이 상대적인 것을 인정한다. 다른 한 편으로 틸리히는 진리 자체가 동적인 것이며, 그 현실화의 역사적 운명에 묶여 있는 것, 인식 주관의 역사적 구성과 이념의 역사적 운명이 일치할 경우 동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 역사의 과정을 마치 절대적 진리를 완전하게 자기화한 것으로 주장하는 절대주의와 그러한 절대주의와 진리의 인식 일반을 단념하는 상대주의의 모두를 비판했는데, 이것을 ‘신앙적 상대주의’라고 부른다. 신칸트주의의 빈텔반트와 딜타이는 각각 다른 의미에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서로 구별함으로써 양자의 독자성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역사주의적 견해는 비록 자신들이 과학임을 표방하나 과학과는 구별되는 학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순간, 역사는 절대주의의 특권을 포기하고 상대주의로 떨어지는 난점을 갖는 것이다. 아무리 법칙적인 원리가 역사 가운데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역사주의의 문제는 결국 사건과 사실의 법칙화는 그것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철학의 일원론의 문제는 다양한 세계의 실재를 하나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과학의 법칙주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독단적인 눈을 가지고 맹목적인 지식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역사는 한 가지 상황을 이후에도 반복하리라고 보는 일회적 시각을 가진 역사주의에서는 포괄적인 절차를 보지 못하는 단순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의 법칙은 반복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 모든 견해들은 성경과 사실 일반을 왜곡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바른 사태에 대해 눈감게 만듦으로써 참된 사태파악을 막아 온 것이다.

현대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교인들이나 교회가 처한 문제는 같은 것이 아닌데

13) 그의 유명한 모토는, ‘우리는 역사에서 윤리를 얻고, 윤리로 우리의 역사를 판정한다.’이다.

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방식으로 보고 한 가지 방향으로 그들을 몰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예컨대 교회의 문제가 대부분 지도자인 목회자의 자질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를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그런 문제를 피해당사자인 교인들에게로 돌리거나, 침체의 원인을 교인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분발을 촉구하면서 문제를 회피한다. 이런 정황은 거의가 예외 없이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진부한 수법이기도 하다. 이제 참다운 신앙의 진면목을 파악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의 시각을 차용해 보자.

II. 다양한 말놀이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후기철학에서 인간의 삶을 다양한 말놀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게 말놀이란 “언어를 말하는 것이 행동이나 삶의 형식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Wittgenstein, 1953: §23)을 뜻한다. 여기서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자연어를 발화하는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말을 통해 사고하는 정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명령과 준행,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기준 제시하기, 그림에서 한 대상의 구성, 사건의 보고, 사건의 반추, 가설의 구성과 검증, 실험의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기, 시나리오 작성과 발표, 음표 읽기, 수수께끼 풀기, 연극하기, 악보 읽기, 수수께끼 풀기, 등(Wittgenstein, Ibid)

이것을 종교적 삶 - 신앙생활 - 에 적용해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표현되는 모든 맥락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전혀 종교적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의 신앙관이 드러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문양이나 로고 혹은 상징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래서 종교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적’이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주장이 적용되는 곳의 의미 지시체를 말한다. 우선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말놀이의 특징을 이해해 보기로 하자.

1. 다양한 종류

비트겐슈타인이 언급하는 말놀이는 매우 다양하며, 그는 그 다양성을 연장통의 연장들에 비유하고 있다. “한 연장통 안에 있는 연장들을 생각해 보라: 망치, 펜치, 톱, 드라이버, 자, 풀 단지, 풀, 못, 나사 - 낱말들의 기능은 이 대상들의 기능만큼이나 다양하다. 물론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낱말들이 말해지는 것을 듣거나 또는 그것이 원고지에 씌어졌거나 인쇄된 것을 마주칠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단일한 외양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적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Wittgenstein, 1953: §11)

그 특징은 우선 모든 놀이를 켈 수 있는 하나의 동질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원론철학에서 보듯이 모든 사태나 존재를 표준화하는 원소란 놀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의 전기 철학에서조차 단일한 기준을 세워 언어의 의미를 점검하려 한 것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¹⁴⁾ 이런 점에서 논리실증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언어관은 검증가능성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그 의미를 결정하려는 잘못된 언어관이다. 언어의 의미란, ‘한국어’와 같은 자연언어를 예로 들면, 품사에 따라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라도 쓰는 지역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Wittgenstein, 1953: §66) 또 비트겐슈타인이 ‘말놀이’라 부르는 것은 위에서 보듯이 말로만 하는 놀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관여하는 소통행위 전체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말놀이는 인간의 삶의 양식이 다양하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의 한계를 밝히며, 현실적 삶이 다기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이런 견해를 갖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단어의 뜻이나 그것이 쓰이는 배경은 무수한 의미를 산출하는 계기를 갖고 있다. 수많은 의미산출의 풍부함이 깃들인 성경을 통해 이해하는 창조의 맥락은 일원적이거나 일법칙적인 것이 아니다.

14) 예컨대 ‘이 붉은 벽돌’이라는 표현은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 개의 단어의 용법을 같은 것으로 본 전기와는 달리, 비록 세 개의 단어이기는 해도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은 하나인 것이다. 말하자면 지시사, 형용사, 명사의 역할은 다른 것이다. 명사와는 달리 지시사, 형용사는 대상을 독립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각각의 역할을 동일하게 보는 것을 어거스틴의 언어관으로 비판한다.

2. 다양한 목적

말놀이가 추구하는 목적은 단일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어떤 놀이는 단순한 재미를 추구한다. 어떤 놀이는 승부욕을 자극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체력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애국을 부추기는 행사가 있고, 지적 발산을 겨냥하는 놀이도 있다. 경쟁을 하더라도 사행심을 조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놀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모토를 차례로 배열하기도 하고, 뒤섞어 놓는가 하면, 강도를 다르게 자극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놀이는 때, 장소, 대상,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갖는다.¹⁵⁾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기술의 목적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창조의 순간순간, 다르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텍스트를 잘 파악할 때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¹⁶⁾

3. 다양한 규칙

어떤 놀이는 공을 써서 운행한다. 배구, 농구, 야구, 럭비, 축구 등. 이 모든 것은 공을 가지고 노는 유희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에 반해 태권도, 복싱, 마라톤 등은 공이란 전혀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공을 사용할 때에 그 놀이는 파행이어서 바로 반칙이 선언되며 더 이상 그 놀이가 되지 않는다. 공놀이 안에서도 배구와 축구는 다르다. 배구는 손을 쓰도록 규칙을 정하고, 축구는 발과 몸을 쓰지, 손은 절대 쓰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만일 규칙을 따라 경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칙이 되며, 반칙은 그 놀이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서는 반칙을 범한 놀이는 더 이상 그 놀이가 아니거나, 혹 그 반칙이 허용되는 놀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놀이가 되는 것이다.¹⁷⁾

예를 들어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는 종교라도 기독교 안의 여러 종파들은 그것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이지만, 통일교나 몰몬교에서는 성경에 다른 경전과 같은 권위를 두거나 아예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15)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놀이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생각하기보다는 놀이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강조한다.

16) 예컨대 『성경』 중 구약의 『역대기』, 『열왕기』, 『사무엘』과,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각각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나 그 기록목적은 서로 다르다.

17) 예컨대 테니스와 탁구(테이블 테니스)는 전혀 다른 놀이가 된다.

혀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락이란 어떤 교회(성직자)가 실제로는 성경의 권위 외에 다른 것 - 예컨대 은사 -에 권위를 인정하므로 그 교회가 이탈하는 것을 일컫는다.

4. 다양한 문맥과 기능

같은 단어라도 문법의 문맥이 다르면 그 뜻은 달라진다. 같은 사람이라도 서는 위치가 바뀌면 그 역할은 달라진다. 이 문맥은 공간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주체와 객체에 따라 그 입장이 달라진다. 이 미묘한 구별은 철학에 따라 아주 정교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생철학이나 실존철학 혹은 현상학은 이것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고, 형이상학이나 과학철학은 여기에 좀 무디다고 할 수 있다.

‘날말의 적용은 기관차의 기관실과 같다. 모든 손잡이들이 같은 것으로 보이나, 실은 모두가 다르다. 하나는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된 크랭크 손잡이이고 다른 하나는 스위치 손잡이로 두 작동 위치만 있으며, 커짐/꺼짐만이 있다. 세 번째 것은 브레이크 손잡이인데, 더 세게 밟으면 더 센 브레이크가 잡힌다. 네 번째는 펌프손잡이로 앞뒤로만 움직이면서 작동된다.’ (Wittgenstein, 1953: §12 참조).

언어나 작동 손잡이는 쓰이는 데 따라 그 기능이 다르다. 즉 쓰이는 맥락에 따라 기능 혹은 의미나 문법이 달라지므로 고정된 기능을 고집하거나 의미를 한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겉보기가 같은 도구나 날말을 고정된 고유한 의미나 기능을 필연적으로나 획일적인 것으로만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만 규약적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이해하면서 이제 신앙적 맥락으로 들어 가 보자.

III. 천지창조의 질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한다: “철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말의 실질적 용법을 방해하지 않는다. 철학은 결국 그것을 기술할 뿐이다. 이유는 철학은 거기에 어떤 토대를 제공할 수도 없다. 그것은 매사를 있는 대로 남겨 놓는다.”(Wittgenstein, 1953: §124).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묘사하는, 즉 새로운 질서나 이념을 부여하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사태를 있는 대로 기술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철학을 통해서 외계를 묘사한다면 외계인 세상은 앞에서 언급한 단일성의 특징으로 드러날 수 없다. 우리가 접하는 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인가? 그 근원적인 구조를 알기 위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Day	Activity	Creation
1		Light and Darkness
2	Division	Water above and below: creation of vault
3		Sea and Earth, Vegetables on Earth
4		Sun, Moon, Stars
5	Filling	Fishes and Aves
6		Animals and Human beings
7	Completion	Sabbath, Rest

위의 표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천지창조의 구성과 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은 곧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의 원질을 드러내 보여준다.

1. 다양성

창조된 피조물은 애초부터 여러 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많은 요소와 단계 그리고 다양한 종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최근에 오염과 공해 및 자연의 오남용을 통해 종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의 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광물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http://blog.naver.com/mkleopard/130083647429>).¹⁸⁾ 해

18) 최근의 과학 잡지 national geographic 2015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광물의 종류는 약 2,400종이나 된다. 석영은 수정·자수정·연수정·장미석영 등 여러 가지 변종을 가지고 있지만, 광물 종으로는 석영 하나에 속한다. 매년 세계적으로 약 25종의 신종 광물이 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광물의 종류는 약 2,400종이나 된다. 석영은 수정·자수정·연수정·장미석영 등 여러 가지 변종을 가지고 있지만, 광물 종으로는 석영 하나에 속한다. 매년 세계적으로 약 25종의 신종 광물이 발견되고 있다.

양서식 생물종은 식물이 약 17,000종, 동물이 약 152,000종, 도합 169,000종이라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육상서식생물과 미생물 및 각종 유무기 재료를 합산하면 그 종류와 실제 개수는 얼마가 될는지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것도 지구 안으로 한정해서 그러하다. 만약 우리의 관심을 태양계와 은하계 및 우주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종들의 출현은 창조 초기부터 분절적이고도 독립적으로 출현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의 창세기는 압축적으로 말해주는데, 1일에서 6일까지 이룬 일련의 창조진행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물이 특성상 동일성을 가지고 어느 순간 이 유도 없이(!) 어떤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공간을 넓혀가는 양적 산출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다양성은 그 원질로서의 다양성이므로 일원론적 설명으로는 기술이 불가능한 사태를 말해준다. 여기서 다양성은 창조의 결과로서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창조 시부터 모든 만물의 구조와 질서에 부여된 다양성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교리 혹은 그 구조가 처음부터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치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

2. 조화성

모든 우주와 그 안에 운행되는 물질들과 그 역사의 구조 간에는 그 법칙과 질서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이 밝혀졌고, 또 무한한 미래에도 무수한 것들이 새롭게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이 규칙의 운행기제를 보면 극단의 조화를 이룬다. 그 구조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아주 합리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한 천지 창조의 질서를 보여준다.

첫째, 창조의 순서는 배경에 해당하는 환경을 설치한 뒤, 그 속의 내용이 채워진다. 1일에서 3일까지는 환경이 마련되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각 일의 환경에 그 내용물이 채워지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첫날 빛의 창조에 이어 어둠을 대치시키고는, 4번째 날에 해, 달, 별들을 제조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둘째 날에는 물과 공창을 만들어 물을 나뉘며 그 속에 들어갈 어류와 조류를 기다렸다.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여 만들고 각종 동물과 사람을 빚어 육지에 정주케 하고, 서로 재미있는 제도를 창출하게 했다.

둘째, 창조의 방법에는 정교함이 있다. 1→4, 2→5, 3→6일로 쌍을 이루며 각각의 충족이 이루어지는 틀과 내용이라는 순서도 있고, 우주에서 공창으로 그리고 육지에 이르는 창조를 이루면서 점강법적으로 창조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무생물, 식

물, 동물 및 사람에 이르는 인지론 상 저차원에서 고차원적으로 이행하는 조직적 창조와 질서화를 이루는 정교함이 그 과정에서 읽혀진다.

셋째, 시간의 양과 질이 결정되고 있다. 1~6일까지는 근무를 그리고 제7일에는 전체를 완성하고 휴식하는 시간이 전개되었다. 이 7일은 휴식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앞 6일간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의미와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에 있어서 일과 쉼은 질적 차이를 갖는다. 움직이는 시간에서만 표현 가능한 일을 6일 동안 - 물론 여기서 하루가 지금의 하루인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른다 - 진행하였다는 것이 한 편으로는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완전한 휴식에서 시간의 의미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시간 개념은 운동 혹은 노동에서와 휴식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다. 휴식에서의 시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시간성 timelessnes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Wittgenstein, 1961: 6.3611).

3. 순차적 이행성

창세기 1장에서 창조활동은 어둠에서 밝음을, 상중하의 진행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전이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물론 이 순차적 진행이 과학보다는 성경적 입장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름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이나 진술이 바로 논리적이고 정교한 이행을 포함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창조론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신비적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짜놓은 각본을 연출하듯이,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됨을 창조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종교적 활동은 통상 신비로움을 머금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논리와 절차를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오해한다. 적어도 삶의 낮은 단계에서는 상식적인 합리성을 떠지만 결국은 인간의 상식과 합리를 초월하는 형식을 띠는 오해를 신자나 종교지도자들이 은연중 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사제들에게 그 권한을 맡긴다. 그리고 이 권한을 맡은 사제는 그것을 자의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창조적 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고 빚어내는 논리적 일탈에 해당한다. 마치 과학에서 ‘대폭발’을 우주의 기원으로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사고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듯, 충동적인 신앙적 활동은 실제로는 성경적이기를 그만두는,

비신앙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IV. 나오는 말

이 연구는 현대기독교의 비기독교적 문제가 기독교의 근본을 결여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자의 전제는 기독교적 일탈이 근본적으로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직성과 독단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단순하고도 맹목적인 전제를 타파하기 위해 다원화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을 지렛대로 삼아, 세계구성의 원론적 틀인 창세기를 이해해 보았다.

종교개혁의 시발이 그러하였듯이 현대 교회의 일탈도 성경의 근본적 오해로부터 비롯되었다. 성경 오해의 근원적 특징을 본문에서는 일원론, 과학/법칙주의, 그리고 역사주의로 상정하였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일원론은 철학사에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밀레토스학과, 엘레아학파를 대표로 뽑아 그것들이 주장하는 세계이해의 방식을 음미했다. 그들은 한 마디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서 그 근원이 되는 ‘원질’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경험에 의존하거나 추론에 의존하면서 다양성을 사상하는 환원주의자가 됨으로써 다양한 실재를 보는 일에 실패하였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탈은 경험적인 신앙의 일부나 교리의 관념의 포로가 된 지도자나 신도들이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안들을 단순화시키고 한 가지 진리관을 강요함으로써 결속력을 높이는 대신,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에 대해 눈을 감게 만드는 ‘무지화’를 통해 점점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과학주의에서는 뉴턴의 고전역학을 들어 그것이 갖고 있는 세계물질 이해의 한계는 절대주의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물리적 세계 이해의 틀이 되는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의 ‘규정’은 맹목적이며, 이를 전제조건으로 상정하는 모든 물질의 기계적 법칙은 다양한 우주를 이해하는데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도록 만들었다. 비로소 상대성 원리로 대표되는 현대물리학의 도움을 통해 많은 과학적 사태들이 상대적임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우주의 다면적 얼굴을 접하게 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열린 시각과 태도로 공존하는 다원적 가치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앙적 맥락에서도 절대적이고 공허한 법칙과 권위들을 다양한 구성의 시각과 견해를 인정함으로써 신앙공동체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탈권위적인 상대적 지식과 신념이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속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역사주의에서도 과학과 별개의 지식을 인정함으로써 독단적인 가치의 맥락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주의적 역사관을 가짐으로써 세계 이해에서 고립되는 형국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방법론으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인 말놀이 이념을 음미해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의 삶을 다양한 말놀이로 설명하고 있다. 말놀이는 그에게서 삶의 형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삶의 형식은 여러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종류, 목적, 규칙, 맥락 등에서 그러하다. 이런 다양한 삶의 국면은 그 범위가 모든 물질을 포섭하는 존재 전체에 확대할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과 그 틀을 가지고 창조적 상황을 이해하면, 그 결과는 단일성과 절대성으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천지창조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다양성, 조화성, 순차적 이행성으로 그 체제가 임혀진다. 말하자면, 단일성, 무질서, 폭발적 시작은 창조의 시점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빅뱅이론과 같은 ‘과학적 설명’은 비과학적이면서도 비논리적인 것으로 판명된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는 창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라는 진부한 과제의 관정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이런 논의를 통해 일상적인 신앙적 논의와 태도들이 너무나 단순하고도 비상식적인 타락에 대해 눈을 감고 있고, 이런 무책임한 신앙인들의 태도가 교회의 일탈을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 일반에까지 물의를 일으키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린 생각을 가지면 합리적 태도를 가져 기존의 병폐를 피하는 계기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꼭 시작될 필요가 있다.

사실 본 논문의 의의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을 빌려 삶의 형식의 다양성을 보기만 하면 현재의 기독교적 오해나 문제점은 쉽게 해결 혹은 해소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탈획일화와 다양성을 발견하는 지평을 여는 시도라는 점에 논의의 가치를 둔다면, 본격적 담론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성경 (한글개역).

The Holy Bible (2001). New Korean Revised Version.

엘 깔스베이그 저, 황영철 역 (1981). **기독교인의 세계관**. 서울: 평화사.

[Whang Young Chul (1981).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Trans. L. Kalsbeek, Seoul: Pyoung Wha Sa.]

헤르만 도예베르트 저, 문석호 역 (1994). **서양 문화의 뿌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Moon, Seokho (1994). *Roots of Western Culture: Pagan, Secular, and Christian Options*. Seoul: Christian Digest. Trans. Herman Dooyeweerd, T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콜린 브라운 저, 문석호 역 (1981). **철학과 기독교 신앙**. 서울: 평화사.

[Moon, Seokho (1981). *Philosophy and Christian Faith*, Seoul: Pyong Wha Sa. Trans. Colin Brown (1968). *Philosophy and Christian Faith*. London: The Tyndale Press.]

성인경 엮음 (1996). **프란시스 슈페어 읽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Sung, In Kyung (1996). *Read Fancis A Schaeffer*. Seoul: Korean L'Abri.]

신상형 (1996). 비트겐슈타인의 말놀이 해석. **철학논총**, 12집, 421-444.

[Shin, SangHyong (1996). An Interpretation of Wittgenstein's Language-games. *Chulhaknonchong*, v.12, 421-444.

신상형 (2013). 전기비트겐슈타인을 통한 기독교 철학의 모색. **철학연구**, 125집, 227-260.

[Shin, SangHyong (2013). An Earlier Wittgensteinian Approach to Christian Philosophy. *Chulhak Yeongu*, v.125, 227-260.

신상형 (2017). 비트겐슈타인의 『논고』 읽기. **철학논총**, 87집259-297쪽.

[Shin, SangHyong (2017). Wittgenstein's Reading Tractatus. *Chulhaknonchong*, v.87, 259-297.]

정진홍 (1996).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Jung, Jinhong (1996).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Religious Cultur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요하네스 힐쉬베르거 저, 강성위 역 (1992). **서양철학사**, 대구:이문출판사.

[Kang, Seong-ui (1983).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Daegu: I-Moon. Trans. Hirschberg, Johannes (1981). *Geschichte der Philosophie Neuzeit und Gegenwart*. Verlag Herder Freiburg im Breisgau]

- Anscombe, G. E. M (1959).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 Armstrong, K. (2009). *A Case for God*, New York: Alfred A. Knopf.
- Douglas, J. D.(ed.) (1962). *The New Bible Diction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Gier, N. F (1981). *Wittgenstein and Phenomenol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lock, H-J (1996). *A Wittgenstein Dictionary*, Oxford: Blackwell.
- Hacker, P. M. S (1986). *Insight and Illusion: Themes i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Kripke, S (1982).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enberg, J. F. and Travis C. (1971).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Wittgenstein, L (1974). *Philosophical Grammar*, ed. R. Rhees, trans. A. Kenny,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6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1980). *Culture and Value*, ed. G. H. von Wright, trans. P. Winch, Oxford: Blackwell.
- _____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lackwell.
- <http://blog.naver.com/mkleopard/130083647429>.

논문초록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기독교적 변용
- 후기철학의 적용 -

신상형 (안동대학교)

이 연구는 현대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적 견해를 써서 기독교의 경직된 모습을 반추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그것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쓴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는 개신교회는 최근 급격히 폐쇄되고 경직되는, 500년 전의 부정적인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공적인 대형교회가 목회자의 사적 세습화를 이루고, 헌금이 특정인에 의해 유용되며, 교회의 제도가 사사로이 변조되고, 신학이 곡학아세 하는 기복적 타락의 형태를 띠는 등 세속적 일탈의 모습이 거리낌 없이 자행된다. 이 때문에 교회는 안팎에서 많은 비난을 받으며 기독교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런 탈 기독교적 세속화는 단순히 구성원 몇 사람의 이권추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의 근본적 오독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기는 기독교 사상의 근본적 오독은 성경의 오독에서 비롯된다. 이 오독의 모습은 모든 것의 일원화, 법칙화, 숙명적 기복화로 나타난다. 물론 기독교의 오독만이 이것을 산출하는 원인은 아니다. 그것은 철학과 과학 혹은 역사의 해석에서 있어왔다. 이런 기존의 이론들은 오독의 모습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철학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진술하는 입장에 비해 일원적 세계이해는 성경의 사상에 적용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사상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뿐만더러 과학이 말하는 절대시간이나 절대공간도 고대과학의 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상대적 시간·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양한 이론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성경이 의도하는 -중세의 신학과 이론이 오해된 것과는 다른- 진리를 왜곡시켰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역사주의적 입장은 역사의 기존 사례를 법제화하여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적 가능성을 배척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이고 총체적 성경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여 사물과 사태를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사태는 놀이가 된다. 놀이는 인간의 삶 전체, 더 나아가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일컫는 총칭이다. 놀이는 그런데 그 자체의 특성이나 목적 그리고 규칙을 갖고 있다. 규칙은 이 놀이들이 갖는 자체의 작동원리로서 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규칙은 수많은 놀이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기제로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켈 수 없고 그리로 환원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획일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를 수용해서 성경을 보면, 창조 시부터 만물의 기원은 다원적이다. 또 창조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모습은 단일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동시에 그것은 그러나 우주가 창조되는 모습이 절차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문법적이고 질서를 가지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기독교의 놀이가 고유한 놀이방식 - 운영규칙 - 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지켜간다면 이는 잘 놀아지는 훌륭한 놀이이다. 물론 기독교가 이 규칙을 잘 지킬 때 그것의 고유한 목적 - 그것은 틀림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동반할 것이다 - 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지킬 때 현재의 일탈된 세속화와는 다른 놀이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비트겐슈타인, 기독교, 놀이, 종교, 신앙, 세계

